

다문화사회와 불교의 종교교육*

- 유식의 관점에 의한 다문화교육의 조망 -

김 세 곤

동국대학교

〈요 약〉

현재 다문화 지원 사업이 정부 및 지자체, 민간과 종교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못된다. 특히 문화 및 종교적 정체성과 관련된 다문화사회의 본질적이고 심층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관심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종교교육의 필요성은 정체성 문제의 해결과 같은 더욱 본질적인 현안들을 중심으로 탐색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다문화사회를 위한 불교교육의 의미와 역할도 다문화교육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다문화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중의 하나는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극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를 위한 불교교육의 역할은 그러한 점에서 더 한층 기대된다.

유식이론은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근원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대승불교의 위대한 사상이다. 유식사상의 전체적인 대의는 영상문, 연기문, 삼성문 유식의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속에는 분별의식을 근원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불교교육의 원리와 방법이 잘 함축되어 있다. 나, 자연, 문화와의 상호 연관성, 생사를 포함한 생태적 순환체계의 원리, 부분과 전체를 하나의 관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통일성, 즉 홀리즘 사상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불교적 세계관, 공성의 실천 원리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불교교육의 원리들이 작금의 다문화사회에서 원활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불교교육커리큘럼의 개발이 선행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인접분야인 홀리스틱 교육, 영성교육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다문화교육, 불교교육, 영상문유식, 연기문유식, 삼성문유식

*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 2011학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I. 머리말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한국사회와 교육을 대표하는 주요한 아이콘 중의 하나로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현재 한국의 다문화 인구는 125만 명에 이르고 총인구에 대한 비율도 2.5%로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그 비율이 약 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리다 보니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부와 언론 및 학계의 관심 또한 당연히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2005년 이후로 본격화하기에 이른다. 한국의 산업화를 흔히 압축성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듯이, 현재 한국 다문화 학회 양기호 회장(2011)도 한국의 다문화 정책 또한 단기간에 압축 성장 한 것으로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적고 있다. 즉 다문화정책을 위하여 중앙부처 법률이 4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조례가 무려 200개가 넘는다. 예산은 2009년 1,053억 원, 2010년 1,173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인 지원네트워크도 잘 구축되어 있다. 160개에 달하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전국에 300개가 넘는 종교기관과 시민단체가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하고 있다.¹⁾

그런데 이렇게 급성장한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과연 그 기대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특히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인구통계학적인 수준의 양적인 연구에 치우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되면서 문화정체성이나 종교적 정체성의 문제를 포함한 질적 수준의 보다 깊이 있는 연구로 이어지길 요청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시대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역할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연구가 행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물에서도 그 요지의 대부분은 결국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인식의 오류, 즉 편견이나 차별적 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또한 우리의 다문화교육현장에서는 동화주의를 넘어 다문화주의라는 입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정체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글로벌화라는 허울 좋은 교육정책의 미명하에 그저 힘겨운 숨을 몰아쉬면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본 연구도 이러한 점들에 착목하여 우선 우리의 다문화교육의 간략한 변천사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나아가 편견이나 차별적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불교의 교육적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편견이나 차별성과 같은 악견(망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유식사상을 중심으로 그 속에 함의된 세계관이나 인간관을 교육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그로부터 이원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의 원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왜냐하

1) <다문화정책 점검>, 《동아일보》, 2011년 2월 8일자, 제5면.

면 이러한 시도자체가 바로 다문화사회를 위한 불교교육의 역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방대한 불교교리 가운데 특히 유식사상에 한정시킨 주된 이유는 편견을 비롯한 이분법적인 사고패턴, 그리고 차별성과 같은 의식의 문제들은 인식(사고방식)의 문제와 바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유식사상은 인간들이 일으키는 인식적 오류의 원인과 그 해결방법 등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사안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다소 소박한 문제의식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담론을 시작해보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교육과 불교의 종교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둘째,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왜 유식사상이 불교 종교교육의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는가? 셋째, 다문화교육을 위한 유식사상의 교육적인 적용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II. 다문화교육과 불교의 종교교육

1. 우리 다문화교육의 변천과 다문화교육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점

다문화교육연구방법회(2010)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의 시작은 동화주의에서 출발하여 문화적 다원주의를 거쳐 현재 다문화주의에 도달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김용신(2010)은 다문화교육의 기본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균형주의를 내세워 설명하고 있는데, 동화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개념에 대한 양쪽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교육연구방법회의 설명에 의하면, 동화주의에 기초한 다문화교육은 소수인종, 소수민족, 소수집단의 문화를 그 사회가 지향하는 주류문화에 편입시켜 동화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졌기 때문에 나라마다 부작용을 일으키며 실패했다고 한다. 그 결과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교육실천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여기서 문화적 다원주의라는 의미는 “공존하는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의미”²⁾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 주의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뛰어 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이것은 “소수문화의 보호와 확장을 위한 범 차원의 지원 및 사회통합을 유도한다는 의미”³⁾의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김용신(2010)은 다문화주의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흔히 샐러드 볼이나, 모자이크, 피자이론이라고 칭한다.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2) 김용신, 『글로벌 다문화교육의 이해』(서울: 이담, 2011), 22쪽.

3) 위의 책, 23쪽.

들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주류사회와 소통하며 평화문화를 구축한다는 관점이다.”⁴⁾ 하지만 “다문화주의는 자칫하면 문화의 경계를 강조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철저한 상대주의로 흐르면서 분리주의를 조장하거나 문화적 계토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⁵⁾고 언급하면서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다문화교육’의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것은 다문화주의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여 ‘다문화주의’이론의 지지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한국적 다문화 상황에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장단점을 함께 지닌다”⁶⁾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다문화교육연구 방법회의 설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김용신은 “동등한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의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이 실행되면서 모두의 정체성 존중 유지를 전제로 세계와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나가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⁷⁾는 차원에서 균형주의를 제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균형주의를 반영한 새로운 다문화교육 이론이 문화민주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김용신은 문화민주주의의 접근방식에 기초한 다문화교육이론을 제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소수와 다수, 주류문화와 주변문화, 개인과 국가, 학생과 학교가 민주적 원리에 따라 눈에 보이는 실제적 형평을 추구하는 것”⁸⁾이라는 그의 주장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 김용신은 최근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진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현실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협역문화(micro-culture)와 광역문화(macro-culture), 분리와 통합, 소수자와 다수자를 모두 고려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소수 이주자 집단에 대한 주류 한국사회의 일방적 시혜와 보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소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려는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피부색과 말씨, 문화차이로 인한 따돌림 현상은 여전하며, 북한 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학업 중도 탈락률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⁹⁾

결국 그가 이러한 진단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이주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 집단의 다양한 정체성들을 주류문화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다룬다고 하는 점”¹⁰⁾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그가 내린 결론은 ‘문화민주주의’ 실현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을 하자는 것인데, 그 핵심적인 요지는 소수집단이 가진 문화와

4) 위의 책, 51쪽.

5)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편, 『다문화사회의 이해』(서울: 동녘, 2008), 90쪽에서 재인용.

6) 앞의 책, 51쪽.

7) 위의 책, 52쪽.

8) 위의 책, 53쪽.

9) 위의 책, 23쪽.

10) 위의 책, 23쪽

정체성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수자들의 문화, 언어, 종교, 종족적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수와 학습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다문화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소수집단의 문화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며,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아직 여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당연히 다문화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지만 정체성 혹은 인식의 전환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 성격상 종교교육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교육 또한 다문화교육과의 관련 속에서 다문화시대를 위한 그 교육적 역할과 방향을 더 깊이 탐색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다문화교육과 불교 종교교육의 의미와 정체성

현재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다문화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문화주의에 기초하여 교육적으로 그 기능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추세로 진전되고 있는 듯하다.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실천은 다문화 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적인 특성상, 정체성이나 편견과 같은 차별의식과 같은 주제들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종교교육의 기본적인 역할과 내용이 다소 중복될 수도 있고 또 매우 유사한 일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교교육 또한 다문화교육의 범주 속에서 논의해 볼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주제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우선과제 중의 하나는 ‘불교의 종교교육’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즉 ‘불교의 종교교육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명료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범석(2004)이 제안한 종교교육의 개념을 보면, “종교교육은 각 종교들에서 추출된 교육적 함의들을 교육적 체계 내에서 가르치는 실천행위이다. 동시에 교육학적 관점에서 현재의 종교에 관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주어야 할 책무를 갖는다.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원자론적 질문에서 종교란 어떠한가 하는가라는 생성론적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그 하나일 것이다”¹¹⁾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교의 종교교육’의 의미를 그가 제안한 종교교육의 개념에다 대입시켜 약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불교의 종교교육은 불교교리 혹은 불교사상속에서 추출된 교육적인 함의들을 교육적인 체계 내에서 가르치는 실천행위이다. 한편 太田清史(1994)는 ‘불교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불교사상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불교교육학은 불교의 교육적 입장을 명확히 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

11) 박범석, 「종교성 함양의 교육학적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14(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57쪽.

다”¹²⁾고 한다. 또한 불교적 교육관에 대해서는 “불교의 세계관·인간관을 토대로 한 교육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들을 참조하여 본 발표에서도 이 두 사람의 관점을 조합하여 ‘불교의 종교교육’을 ‘불교교육’의 의미와 동일한 맥락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교교육의 의미를 학자 개인의 입장이나 또는 사교육기관에서는 각 종교의 교리에 기초하여 그 의미나 정의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종교교육 또한 엄연히 국가가 만든 교육법이나 교육제도의 틀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공성에 대한 논의, 즉 종교적 교육 행위의 사회적 책무나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종교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공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종교교육의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점이다(김용표, 2010). 즉 종교교육은 종교문화, 종교사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고, 그 종교가 추구하는 교리나 신앙의 원리나 체계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종교 문화적 혹은 종교 교리적 교육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정체성이 확립된 종교교육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에서든, 사교육의 현장에서든 ‘종교교육의 정체성이 무엇이나?’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여간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다문화교육의 방향, 내용,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측면, 즉 다문화교육의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교교육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문에서 우리의 다문화정책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문화 또는 종교적 정체성의 문제를 포함한 질적 차원의 연구 분석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다문화사회를 잘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다문화교육의 현실 또한 그리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교육 또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기본적인 틀과 무관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다문화교육의 현실(현장에서의 실천) 가운데 제일 어렵고 해결하기 곤란한 과제 중의 하나도 결국은 이분법적인 사고(관념)의 틀에서 비롯되는 타인(인종이나 민족)또는 타 문화(언어문제 등)나 타 종교(신앙 또는 신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극복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적 접근방법으로는 정견과 정사유와 같은 팔정도의 실천 교리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특히 분별심과 망식과 같은 인식적인 오류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는데 있어서는 불교 유식만큼이나 사상적 체계가 심오하고 또 교리적으로도 명료한 종교사상도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불교심리학으로 대변되는 불교유식은 인간이 갖는 분별적 사고의 원인과 그 틀을 밝히고 근원적으로 해체하여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도록 깨우치고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심

12) 太田清史, 『佛教教育學序說』(京都市: 同朋舍出版, 1994), 5頁.

식사상과 그 실천적 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불교의 종교 교육적 역할은 편견과 차별성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불교유식의 사상성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불교 교육의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작업이야말로 다문화사회를 위한 불교교육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Ⅲ. 유식사상에 함의된 교육적 원리와 의미

1. 유식사상의 개요

유식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관사상과 함께 대승불교사상을 지탱하는 양대 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불교심리로 불릴 만큼 마음(의식)의 구조와 기능을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심식이론 혹은 불교인식론으로 불릴 만큼 의식·무의식을 포함한 모든 심적 작용이 몸의 변화에 미치는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현대의 인지중심의 심리치료나 혹은 분석심리학의 이론과 대비되어지는 경향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유식사상은 심적인 요소 가운데서도 특히 인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교리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적 체계가 너무 넓고, 깊고도 방대하여 그 사상적 대의를 간결하게 정리하기란 여간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본인의 유식에 대한 식견이나 지식 또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유식학자의 한 사람인 다케무라 마키오(竹村牧男, 2001)¹³⁾가 요약 정리한 유식사상의 전체적인 대의에 기초하여 그 기본사상에 함의된 교육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 시대를 위한 불교교육의 새로운 역할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는 유식사상의 전체적인 교의를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영상문유식, 둘째는 연기문유식, 셋째는 삼성문 유식이다.”¹⁴⁾ 우선 이 3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유식사상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한 연후에 그 속에 함의된 교육적 원리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영상문(影像門) 유식의 관점

영상문유식이란 한마디로 인간의 인식의 성립과정을 설명하는 유식의 독자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즉 인식의 형성과 그 해체과정은 오직 식(唯識)의 작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유가에서는 흔히 ‘유식무경(唯識無境)’이라는 말을 많이 쓴

13) 竹村牧男, 『唯識のこころ: 観心覚夢鈔を読む』(東京: 春秋社, 2001), 4-11頁.

14) 김세곤, 「竹村牧男의 唯識思想論 觀點에서 본 홀리스틱 커리큘럼의 학문적 기초이론의 성격과 의미」,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5권 제1호(서울: 한국일본교육학회, 2010), 79-99쪽을 일부 수정하여 재인용함.

다. 이것은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감촉할 수 있는 감각이라는 인식작용은 외부에 그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직접 보고 듣고 감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심식(心識)에 나타나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설명은 인식의 성립과정에 대한 유식의 독특한 해석방식이라 할 수 있다. 橫山紘一(2009)도 부근(扶根)과 정근(正根)의 불교용어로 감각기관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눈을 통해서 색이나 형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식사상에서는 눈(眼根)이 수동적인 작용이 아니라 안근이 색이나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능동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불교에서는 신체를 유근신(有根身), 즉 ‘근(根)을 가진 몸(身)으로 간주하는데, 즉 이 根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시각과 촉각과 같은 감각기관으로 간주하고 그 근은 사물을 그려내는(형성하는)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한다. 이 根에 해당하는 원어는 ‘인드리아(indriya)’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라몬교의 천둥의 신으로 알려진 인드라(indra; 제석천을 말함)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힘을 가진 것’¹⁵⁾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외부의 꽃을 본다고 가정해 보자. 그때 시각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을 과학적인 상식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외부의 꽃(물체)이 빛을 통해 반사되어 눈에 비치면 각막,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영상이 맺히는 것(꽃)으로 설명하지만 영상문 유식에서는 그 반대로 눈에서 즉 정근에서 빛(에너지)이 방출되어, 그것이 수정체, 각막, 망막 등과 같은 역할 하는 扶根의 도움을 받아 그 에너지가 꽃이라는 외부의 물체에 도달하여 비로소 꽃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식사상에서 보자면 근본적인 인(因)은 모두 아뢰야식 속의 종자이기 때문에 이 부근과 정근은 어디까지나 연(緣)에 불과하다고 한다.

유식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은 인식의 대상을 모두 변형하여 본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마음작용을 단순히 心(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능변(能變)의 마음’이라고 부르며, 반면에 인식의 대상(이것을 흔히 경 ‘境’이라고 부름)도 능변의 마음에 의해서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변(所變)의 경(境)’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한다. 말하자면 영상문 유식이란 능변의 마음과 소변의 경으로 인식의 성립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이러한 2가지 작용을 더욱 명료하게 체계를 잡아 정리한 이론이 바로 사분설(四分說)과 삼류경(三類境)인데 이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지면적인 제한 상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 연기문(緣起門) 유식의 관점

미산스님(2010)도 “모든 불교 공부는 연기법으로 통한다”¹⁶⁾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처럼 연기설은 불교사상의 원류이며 가장 핵심적인 불교교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 이 연기설은 장구한 불교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이론(예를 들면, 업감연기설, 아뢰야식

15) 橫山紘一, 『唯識 般若心經』(東京: 大法輪閣, 2009), 228-229頁.

16) 미산, 『미산스님 초기경전 강의』(서울: 명진출판, 2010), 60쪽.

연기설, 진여연기설, 법계연기설, 육대연기설 등)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교설의 체계 또한 불교의 여타 주요한 교리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일상적인 보통의 의미로는 상호의존성 혹은 원인과 조건이 늘 상호관계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아무튼 연기설은 불교사상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교리인 만큼, 무아설이나 업장설 혹은 윤회설과 같은 불교의 중심사상과도 복잡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만큼 연기설의 핵심을 해독하기란 용이한 작업이 아니지만 특히 이 연기문 유식의 관점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아뢰야식이라는 개념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난관은 이 아뢰야식의 의미 또한 일반인이 개념적 차원에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도 좀 더 쉽게 그 개념에 다가갈 수 있도록 橫山紘一(2009)는 현대의 심리학적인 용어를 일부 차용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식사상에서는 8가지의 식(팔식)을 설정하여 설명하는데 이 팔식은 크게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으로 구분된다. 표층의식은 안, 이, 비, 설, 신식이라고 하는 5가지의 감각적 식에 또 의식이라는 식을 합쳐 6가지 식(육식)으로 구성된다. 심층의식은 다시 마나식(제7식)과 아뢰야식으로 구분되는데, 마나식은 심층의식에 작용하는 자아 집착심을 의미하고, 마지막 8식이 바로 아뢰야식인데 결국 이 아뢰야식이 모든 것을 형성하는 근본의 마음이라고 한다.

한편 이 아뢰야식은 또 일체종자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즉 업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身·語·意의 三業)는 아뢰야식에 종자로 저장되어 우리들의 육체가 멸하더라도 그러한 업은 다음 세대에 전해져 내려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아뢰야식을 중심으로 연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아뢰야식 연기’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한자경(2007)은 다음과 같이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종자가 구체화되는 현행식 중 가장 기본적인 식은 아뢰야식이다. 세계가 식이 그린 영상이라고 간주할 때, 그러한 영상의 세계를 그리는 식은 다름 아닌 아뢰야식이다. 아뢰야식은 12지 연기 중의 한 지인 식으로서 종자의 업력에 따라 명색과 육입처의 근을 형성하는 식이며 또 그에 따라 근에 상응할 현상세계를 형성하는 식이다. 아뢰야식이 세계를 그려내는 것을 아뢰야식의 변현이라고 한다. 아뢰야식의 변현은 그 안에 함장 되어 있던 종자가 현행화 하는 과정이다. 종자에 의해 세계가 영상으로 그려지면 그 대상세계와 마주하여 그 세계를 인식하는 주관의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아뢰야식의 변현은 아뢰야식 자체가 객관과 주관의 모습으로 이원화 하는 과정이다. 식의 전변은 곧 식 자체가 주와 객의 두 부분으로 나뉘는 과정이다.”¹⁷⁾

이 설명은 아뢰야식 연기의 의미를 영상문의 관점과 업의 개념으로 연결시켜 매우 적절하면서도 간결하게 잘 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橫山紘一(2009)도 유식사상에서는 “모든 것은 아뢰야식 연기”¹⁸⁾로 귀결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근본적인 아뢰야식의 존

17) 한자경, 『불교의 무아론』(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203-204쪽.

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하지만 아뢰야식의 존재를 확신하고, 나아가 아뢰야식 연기의 이치를 확실하게 깨달아 표층의식(의식적인 차원의 마음)을 바꾸어 줌으로써 심층의식(무의식적 차원의 마음)까지도 정화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그가 결국 주장하고자 했던 핵심도 심층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표층의 마음인 의식적인 마음의 영역을 우선적으로 잘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교육적 행위의 적용가능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은 바로 불교교육의 원리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3) 삼성문(三性門)의 유식의 관점

앞 단락 에서는 아뢰야식 연기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기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연기를 유식사상에서는 흔히 의타기(依他起)라고도 부른다. 즉 이것은 타(상대)에 의해서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他란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無量無數의 緣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로 우리의 현상세계는 모두가 이 의타기에 의해서 성립되지 않는 것이 없다. 말하자면 이 의타기적인 특성과 성질을 ‘의타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삼성문의 삼성이란 이 ‘의타기성’을 포함하여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원성실성(圓成實性)’의 3가지를 말한다. 한편 변계소집성이란 현상세계에서 어떤 실체가 있다고 의식이나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여 사물이나 자아에 집착하는 성질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평범한 인간의 세계관이 바로 이 변계소집성의 관점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성질이 발생하는 이유를 유식에서는 주로 언어적 작용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오감 개개의 세계에 대해서 그것은 결코 변화지 않는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실체화하여 그러한 외부의 대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전도몽상(顛倒夢想)’이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바로 직시하여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으면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끝으로 원성실성인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공(空)’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타기성의 기본적 성질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의타기성에서는 현상은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반해서, 원성실성에서는 변화지 않는 본질 본성에 주목하여 양쪽을 구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처럼 삼성문 유식의 관점은 특히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의 空性を 깨닫게 되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서 궁극의 해방에 이르는 길과 누구든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데 이 사상의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8) 橫山紘一, 앞의 책, 414頁.

19) 위의 책, 235頁.

2. 유식사상에 함의된 교육적 원리와 의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식사상은 크게 영상문, 연기문, 삼성문의 관점으로 그 대의를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3가지 관점은 근본식이라고 불리는 아뢰야식을 기저로 하여, 특히 연기의 이치와 공사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상문 유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감각, 지각,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인식하는 모든 세계(나와 주변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는 식이 만들어 낸(각자의 세계) 영상(환영,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의 세계를 그리는 식(識)은 다름 아닌 아뢰야식이며 또 그 아뢰야식은 12 연기 가운데 하나인 식의 중심개념으로써 고뇌(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연기의 이치인, 즉 연기문 유식의 관점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삼성문 유식이란 나(마음의 3가지 수준)와 세계(존재의 3가지 형태)를 판단하는 존재론(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에 대한 설명으로, 그 중심개념이 되는 의타기는 곧 연기의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결국 유식의 이러한 관점은 의타기성의 실천적 수행을 불교적 세계관의 중심에 두자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정리해 본 유식사상의 기본적인 대의를 교육적 관점에서 짚어보면, 우선 영상문유식은 일원론 관점의 주객 미분화 특성을 지닌 자기 초월적 의식(인식)에로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끝없는 물음(의문)의 문제와 관련된 선험적 인식론 차원에서의 교육적인 의미를 탐색해 볼 여지가 있다. 연기문 유식의 관점은 나, 자연, 문화의 상호의존적 특성, 나아가 생사의 문제를 포함한 생태순환적 시스템 등의 현상론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의미가 함의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끝으로 삼성문 유식은 존재의 실상을 홀론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불교적 세계관을 체득하게 할 수 있는 교육실천적(방법적)인 의미들이 각각 함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교육실천운동은 영원철학에 바탕을 둔 홀리스틱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토론토 대학의 홀리스틱 교육 실천가이자 이론가 중의 한 사람인 잭 밀러(Jack Miller)²⁰⁾도 홀리즘 사상을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홀리스틱 교육커리큘럼을 창안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그 커리큘럼의 구성원리를 크게 연관, 균형, 포괄이라고 하는 3가지 교육적 관점에서 완성하여 구체적인 교육적 사례와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가 제안한 3가지 교육적 관점은 영상문 유식관, 연기문 유식관 및 삼성문 유식관을 다문화교육을 위한 기본원리로 적용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비교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0) Miller, J. P., *The Holistic Curriculum*, University of Toronto Press Incorporated, 2007.

IV. 다문화교육을 위한 유식사상의 교육적 적용

1. 이원성 극복을 위한 영상문 유식관의 교육적 적용

이원성의 극복, 즉 이분법적 사고패턴을 해체하는 교육적 차원의 작업과 노력은 다문화 교육을 위한 불교교육의 역할 가운데 으뜸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종과 민족에 대한 갈등과 차별의식,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열등의식, 주류적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되는 우월의식,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거부감 등은 모두가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식적 한계의 오류에서 연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이런 생각은 오늘날 과학적 연구방법의 차원에 있어서도 연구대상의 객관성을 절대시하는 양적연구법보다 연구자의 주관성과 참여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질적인 연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면 더 극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패러다임의 질적 변화에는 물론 포스트모던 인식론과 그러한 사조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유혜령(2011)²¹⁾은 질적 연구방법에 있어서 이 포스트모던 인식론은 “해체”와 “생성”이라는 특성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객관적 실재론에 근거하여 도출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지배적인 지식이나 얌의 체계에 대해서도 끝없는 의문으로 맞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의 지평을 열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영상문 유식의 사상성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포스트모던 인식론의 싹’이 그 종자로써 함유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왜냐하면 영상문 유식에서는 아뢰야식의 개념으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는 성질과 그 원인을 유근신(오근, 부근, 정근), 기세간(오경, 법경), 식(의근, 마음)의 연관 작용에 불과하다는 성질을 밝히고 그 무명의 성질을 해체하여 극복해 갈 수 있는 혜안(지혜의 눈)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객관으로서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즉 아공 법공 원리를 ‘공의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의 실천은 보편적 상식과 논리와 합리성의 언어만으로는 행하기가 어렵다. 침묵과 고백, 직관과 성찰의 언어로 의식수준에서부터 시작하여 현대생활 속에서 교육적으로 실행 가능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가는 노력이야말로 다문화교육에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불교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 한다. 따라서 침묵과 고백의 언어를 교육적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불교명상법은 영상문 유식관의 교육적 적용을 위한 훌륭한 대안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1) 유혜령, 『포스트모던 질적 연구의 경향과 논리』, 『홀리스틱교육 연구방법 모색 II』(2011년도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1), 14쪽.

2. ‘관계성 중시’를 위한 연기문 유식관의 교육적 적용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홀리스틱 교육은 단선적 사고를 탈피하여 연관(connection)과 상호관계(relationship)의 탐구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김현재 외 다수, 2003). 특히 잭밀러(Jack Miller, 1986)는 ‘홀리스틱 교육과정’²²⁾을 저술하면서 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3가지 기본원리(균형, 포괄, 연관) 가운데 하나로 이 연관의 관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연관의 관점을 다양한 소재의 교과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당한 분량의 단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순적 사고와 직관의 연관, 심신의 연관, 교과영역간의 연관, 공동체와의 연관, 지구와의 연관, 심지어 자기(영성)와의 연관을 교육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연관 중시의 흐름은 교육의 분야에서 포스트모던 사조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경향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관성 중시의 사조는 생태학을 비롯한 학문 간의 융합적 시도, 즉 통섭적 차원으로의 학문적 성격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흐름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 교육의 분야에서는 ‘영성교육’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본다. ‘영성’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주제는 종교교육에서 깊이 다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사조의 질적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개인의 정체성의 문제조차도 “개인을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타자들 간에 분산되고 중첩되어 있는 유동적인 흐름으로 존재한다”²³⁾는 시각에서 개인의 정체성문제에까지도 질적인 연구방법의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한다. 이처럼 개인의 관계성의 문제를 중시하는 교육연구의 동향은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이러한 관계성 중시의 교육적인 시도와 노력에 ‘과연 ‘불교적 연기’의 의미와 이치가 어느 정도 잘 내포되어 실현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찌됐던 연기문 유식의 관점을 교육적인 소재와 방법으로 잘 엮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으로써 연기설에 내제된 상호연관적인 의미의 본뜻을 여실히 찾아내는 교육적인 작업이야말로 다문화 시대에 있어서 불교의 종교교육이 맡아야 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나와 자연과 문화의 관계적 과정을 외적인 관계를 넘어 내적인 관계의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려는 교육적 풍토와 교육적 운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교과 영역 간 또는 각 학문영역 간의 관련성(관계성)의 의미를 개인적 차원, 집단적 차원, 문화적 제도적 차원에서 탐색할 수 있는 통섭적 차원의 교과 커리큘럼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22) Miller, J. P., *The Holistic Curriculum*, 김현재 · 김명자 · 김복영 · 송민영 · 박현주 · 박성혜, 『홀리스틱 교육과정』(서울: 도서출판 책사랑, 2003).

23) 유헤령, 앞의 책, 18쪽.

3. 문화적 다양성 및 소수자 존중을 위한 삼성문 유식관의 교육적 적용

여기서 문화적 다양성이란 ‘다문화주의’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고자 한다. 다문화교육방법연구회(2010)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뛰어 넘는 개념으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소수문화의 보호와 확장을 위한 법 차원의 지원과, 사회 통합을 유도하려는 정치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²⁴⁾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다문화사회의 모습은 앞서 언급한 의미의 ‘다문화주의’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는 ‘문화’라는 용어를 흔히 쓰고 있지만 ‘그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라는 논의는 문화적 정체성이나 다문화와 같은 주제를 논의할 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김용신은 “문화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해석하는 도구이며 체계이다. 〈중략〉 문화는 인간존재의 다양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기본 요소이므로 모든 사람은 다문화적 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⁵⁾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문화관은 존재론에 관한 삼성문 유식의 관점과 대비시켜 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삼성문 유식도 존재나 세계의 다양한 모습은 ‘心’에 의해서 결정 된다고 하는 심식설의 세계관에서 존재의 문제를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용신의 표현대로 인간 존재의 다양성을 문화가 대변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인간은 모두 다문화적 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수준까지 그러한 논리자체만으로 과연 설득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아마도 진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 즉 의타기성이나 원성실성에 대한 확고한 자각과 깨우침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언어와 생각(사념)이 만들어 내는 변계소집성의 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홀리스틱 교육의 홀리즘(holism)적 세계관에서는 우주는 근원적인 통일성(mysterious unity)과 실재의 상호연관성에 기반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러한 세계관은 삼성설의 원성실성과 의타기성의 세계관과 매우 흡사한 측면이 많다고 사료된다. 이런 점에서 홀리스틱 교육은 다문화사회를 위한 불교교육의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존재의 관계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사상은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의 세계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이러한 근원적인 통일성이 곧 존재(Being)라고 보고, 이러한 존재와의 관계를 깨달음으로써 삶의 기본적인 통일성을 자각할 수 있다”²⁶⁾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는 그의 세계관이 함축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다문화적 특성을 지닌 인간의 존재’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며, 나아가 그런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

24) 다문화교육방법연구회, 『교실 속 다문화교육』(서울: 학이시습, 2010), 23쪽.

25) 김용신, 앞의 책, 17쪽.

26) 김현재 · 김명자 · 김복영 · 송민영 · 박현주 · 박성혜, 앞의 책, 59쪽.

중하는 교육적 실천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존재의 자각은 놀람 또는 외경의식을 불러일으킨다”²⁷⁾는 하이데거의 표현처럼 문화적 차이나 다양성 그리고 그 관계성과 통일성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칠 때 거기에는 분명 놀람과 외경의 경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그러한 문화적인 차이나 다양성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실천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삼성문 유식의 관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空空의 실천은 유식이 설하는 삼성문 이론에 근거해서 행할 수 가 있다”²⁸⁾는 橫山紘一(2009)의 설명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이다. 물론 놀람이나 외경과 같은, 즉 진정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존재의 관계성과 통일성을 오늘날 경쟁력과 지력을 우선시 하는 현실적인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적 작업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스스로 깨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지는 하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은유적 방식이나 시각화(심상화)와 같은 방법 등을 교육 방법적으로 적절히 잘 활용하여 학생들의 직관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접근한다면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불교에서空空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참선을 들 수 있는데 참선에서 활용하고 있는 화두 또는 공안은 어느 의미에서는 언어 및 의식적 수준에서 최고의 은유적, 유추적, 상징적 표현방식을 통해 초월적 의식세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삼성문 유식관의 교육적인 적용을 위해 은유적 방법의 적절한 활용은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맺음말

다문화사회의 확산은 이미 글로벌 시대에 깊숙이 진입해 있는 우리사회의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이러한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불교 종교 교육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현재 다문화교육지원사업을 비롯한 정부차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만족한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문화적·종교적 정체성의 문제와 같은 다문화사회의 핵심적이며 심층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많은 관심과 질적 차원의 깊이 있는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종교교육의 필요성은 바로 이러한 현안들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부 사찰에서는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와 같은 일종의 문화 교육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종교교육이라기보다는 종교기관에서 행사하는 다문화교육의 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울릴지도 모

27) 위의 책, 59쪽.

28) 橫山紘一, 앞의 책, 412쪽.

른다. 아무튼 아직까지 공적인 차원의 종교교육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문화사회를 위한 불교 종교교육의 의미와 역할들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다문화교육과의 관련 속에서 추구해 본다면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종교교육이든 다문화교육이든 둘 다 모두 다문화사회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유형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그 본래의 교육적 행위들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다문화교육의 현장에서도 문화 및 종교적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중의 하나는 어찌면 편견이나 차별의식과 같은 인식 및 신념체계의 오류를 교육을 통해서 자각하고 성찰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이나 믿음 또는 신념체계와 관련된 문제는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 교육, 예를 들면, 윤리교육이나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를 초극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불교교육의 역할은 이러한 점에서 더 한층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불교의 유식은 편견이나 차별의식과 같은 인식적 오류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교리적으로 정교하게 체계화하여 소상히 잘 설명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이론적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식사상의 전체적인 대의를 영상문, 연기문, 삼성문 유식의 관점에서 재정리 한 다케무라 마키오의 견해에는 분별의식을 근원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불교교육의 원리와 방법이 잘 함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말하자면 유식사상에는 나·자연·문화와의 상호 연관성, 생사를 포함한 생태적 순환체계의 원리, 부분과 전체를 하나의 관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통일성, 즉 홀리즘 사상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불교적 세계관, 공성의 실천 원리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주객분리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근원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유식사상의 위대한 자기초월적 원리들이 종교교육을 통해서 원활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부터 좀 더 수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불교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이 선행되고 또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홀리스틱 교육을 비롯한 영성교육과 같은 종교교육의 관련 인접학문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대책』. 서울: 교육부. 2006.
- _____. 『다문화가정자녀 현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8.
- 김명우. 『유식의 삼성설 연구』.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2008.
- 김용신. 「다문화사회의 시민 형성 논리: 문화민주주의 접근」. 『비교민주주의의연구』 4. 서울: 비교민주주의교육센터. 2008.
- _____. 『다문화교육론서설』.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2009.
- _____.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 문제점, 그리고 비전」. 『교육정책포럼』 196. 한국교육개발원. 2009.
- _____. 『글로벌 다문화교육의 이해』. 서울: 이담. 2011.
- 김용표. 『포스트모던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 서울: 정우서적. 2010.
- 김중순.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종교의 문제 : 특히 이슬람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6. 서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0.
- _____. 『문화의 이해와 다문화교육』. 서울: 소통. 2010.
- 김현재 · 김명자 · 김복영 · 송민영 · 박현주 · 박성혜 번역. Jack Miller 지음(2003). 홀리스틱교육과정. 도서출판 책사랑. 2003.
- 다문화교육연구방법회. 『교실 속 다문화교육』. 서울: 학이시습. 2010.
- 동아일보. 〈다문화정책 점검〉. 2011년 2월 8일자. 제5면.
- 미산. 『미산스님 초기경전 강의』. 서울: 명진출판. 2010.
- 박범석. 「종교성 함양의 교육학적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1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57쪽.
- 오경석. 『한국의 다문화교육 현황과 과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 유네스코아시아 · 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편. 『다문화사회의 이해』. 서울: 동녘. 2008.
- 유혜령. 「포스트모던 질적 연구의 경향과 논리」. 『홀리스틱교육 연구방법 모색 (II)』. 2011년도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1.
- 이원희.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 시대의 초등 교육과정』. 서울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초등교육 학술대회. 2008.
- 원진숙 외.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서울: 사회평론. 2010.
- 한자경. 『불교의 무아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 Bank, J. A. & Banks, C. A. M. (eds.). *Multicultural Education*. N. J. John Wiley & Sons. 2007.
- Banks, J. A. *Educating Citizens a Multicultural Society*. 김용신 외 역. 『다문화시민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9.
- Bohm, D. *Wholeness And The Implicate Ord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 Emerson, R. W. *The Journals Of Ralph Waldo Emerson*. 9. Boston: Houghton Mifflin. 1909-14.
- Eunsook Lee Zeilfelder. 『한국 사회와 다문화가족』. 경기: 양서원. 2007.

- Ferrer, J. N. *Revisioning Transpersonal Theory: A Participatory vision of hu-man spirituality*. Albany, NY: SUNY Press. 2002.
- Howe, Kenneth R. *Notable Selections In Multicultural Education*. Connecticut, Dushkin/McGraw-Hill. 2000.
- Huxley, A. *The perenni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Colophon. 1970.
- Miller, J. P. *The Holistic Curriculum*. University of Toronto Press Incorporated. 2007.
- Pate, Glenn S. *Notable Selections in Multicultural Education*. Connecticut, Dushkin/McGraw-Hill. 2000.
- Sleeter, Christine E. and Grant, Carl A. *Multicultural Education*. N. J. John Wiley & Sons. 2007.
- Waldron, Jeremy. *Public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竹村牧男. 『唯識のこころ: 観心覚夢鈔を読む』. 東京: 春秋社. 2001. 4-11頁.
- 太田清史. 『佛教教育學序説』. 京都: 同朋舎出版. 1994. 5頁.
- 横山紘一. 『唯識 般若心經』. 東京: 大法輪閣, 2009. 228-229頁.

원고접수 : 2011년 6월 20일 1차 심사 : 6월 28일 게재승인일 : 7월 11일

연구자소개 : 김세곤

① 전공 : 유아교육학 / 소속 : 동국대학교 사범교육대학 유아교육과

② 관심영역 : 홀리스틱 교육, 불교상담, 초월심리학, 생태유아교육, 불교교육

③ 주요논저 : 『명상의 심리학』(역서), 『자기이해를 위한 심리학』(역서), 『인간심리의 이해』(공저), 『프로이트의 마음의 신비입문』(역서)

④ E-mail : ksg@dongguk.ac.kr

Abstract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Religion Education of Buddhism: The View of Multi-cultural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Thought of Consciousness Only

Kim, Segon

Dongguk University

Currently, projects of support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tend to increase rapidly through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civilian and religious organizations, but there are still a lot to be done. Particularly, for the essential and in-depth properties of multiculture concerning cultural and religious identity, deeper studies and more interests will be desperately needed.

The requirement of religion education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can be researched through more fundamental issues including the solution of identity problem. In addition, the meaning and role of the Buddhism education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can be discussed in regard to multi-cultural education. However, since one of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facing in the real cas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getting over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resulting from fallacy of recognition, the role of Buddhism education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is further expected with it.

The theory of Yousik is the great idea of mahāyāna that could deconstruct prejudice or discrimination fundamentally. The general tenor of Yousik comes down to Youngsangmun, Yunkimun, Samsungmun Yousik, in which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Buddhism education are implicated to help transcend discrimination fundamentally. The interrelationship among myself, nature, and culture, the principle of ecological cycle system including life and death, the unity that can handle whole and parts in one point of view, that is, Buddhist view of the world through holism, the practical principles of śūnyatā are well organized. For these Buddhist principles to realize smoothly in the current multi-cultural society, systematic and specific Buddhism education curriculum that can be easily accessible

in the front line of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do this, more interest and research should be required for the adjacent fields, holistic education, and spiritual education as well.

Key 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Buddhism Education, Youngsangmun Yousik, Yunkimun Yousik, Samsungmun Yousik